

# 이젠 현재의 시간,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자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 이후 2주째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2일까지 2주 넘게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해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최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27일 변론종결 이후 3월 10일 결정까지 11일이 걸렸다.

그만큼 현재의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다만, 현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연일 탄핵심판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당장 이번 주말에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측과 반

대한 측의 거리 시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졌고, 의원들은 국회에 아닌 거리에 몰려나와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현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란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진영에 반대되는 현재 결정이 나오면 내란이라고 일으키자고 선동하는 듯 하다.

지난해 말부터 나라가 온통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 서민 경제는 피폐해졌고 해외에선 글로벌 관세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가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정부의 시계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멈춰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어찌보면 그들 본분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심판결정에 불복해 내란을 운 하는 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한 국가의 리더로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누구 손을 들어주던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란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발을 딛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를 깨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혼란을 틈타 활개를 치는 자칭 종교인, 교육인, 유투버 등이다. 이들은 온갖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자극하며 혼돈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종교인이나 교육자인지, 이런 혼란을 틈타 사욕을 채우려는 사이비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재의 시간이 오고 있다. 탄핵심판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현재에서 충분히 할 얘기를 다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심판관이라 할 수 있는 현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간이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패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고, 현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우리 정치와 시민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y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3일 (음 2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48년생** 좋은 일을 자랑 마라. **60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보자. **72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나서지 마라. **84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 37년생** 숨어 있는 낭비를 즐기고 긴축재정. **49년생**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61년생** 지나는 세월이 허망하기만 하다. **73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라. **85년생**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 38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50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6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돌 고을 모르겠다. **74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 **86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안.
- 39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51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63년생**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하라. **75년생** 성공은 노력의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 **87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 40년생** 약간의 먹구름은 무서해도 좋다. **52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64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76년생** 노력의 뒤에는 위대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 **88년생** 진실한 사랑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 41년생**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53년생**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5년생** 눈 건강이 염려되니 안과를 방문. **77년생** 진한 사랑의 속삭임에 의심을 해보는 것도. **89년생** 밖은 전쟁터이니 투자는 신중하게.
- 42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5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본다. **66년생** 자신을 격려하라. **78년생** 거짓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인데. **90년생**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 43년생** 운이 흐전되어 금전이 떠르는 하루. **55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67년생** 오늘의 불운을 아제의 교만이다. **79년생** 남의 홍보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가 된다. **91년생**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 44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56년생**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마음 편하다. **68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제이다. **80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소지품 주의. **92년생** 집을 신중히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생각해보는 것이.
- 45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량으로 여기지만 별거 아니다. **57년생** 유혹이 많으니 절제를.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1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실 수도 더 튀어나온다. **93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 46년생** 추분이니 조상님께 감사기도를. **58년생** 오후 교통안전에 유의. **70년생** 식은 죽 먹기도 쉽지만 않다. **82년생** 진달래와 철쭉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산철쭉에는 독성이 있는데 사람 관계도 이와 같은 이치. **94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
- 47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59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어야 한다. **71년생** 뒷사람의 충고는 수용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83년생**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95년생** 막상 이혼하니 배우자의 반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 새마을금고, 끝 아닌 시작



기지 수첩  
김 정 산 (금융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선거가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끝났다. 1963년 새마을금고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를 도입했다. 선거 당일 전국 금고는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소중한 출자금을 알뜰하게 관리할 차기 이사장을 뽑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선거가 끝난지 딱 일주일이지났다. 저조한 투표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이번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25.7%를 기록했다. 그중 서울의 투표율은 26.8%, 유권자 19만7194명 중 5만2757명이 참여했다. 무투표 당선자가 압도적인 것 또한 비

판의 대상이다. 서울 금고 192곳 중 143곳이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최종 경쟁률은 1.3대 1이다. 역대 연봉으로 잘 알려진 이사장 선거 경쟁률 치곤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채신의 취지를 가지고 치른 선거의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의 비판 지점은 딱 여기까지다. 일부에선 이사장의 학력과 전문성을 놓고 쌍심지를 켜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같은 비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높은 학력과 금융권 근무 이력 여부 등이 이사장의 역량을 입증하진 않기 때문이다.

일단 새마을금고가 운영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주 고객은 유동성이 큰 주변 시장 상인이다. 실제로 지역 금고를 다녀보면 지하철역 등 편의시설과 동떨어진 경우가 빈번하다. 주로 시장이나 상가 근처에 있다. 그만큼 소

통과 일선 영업능력이 중요하다. 수도권에는 실험,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도 대거 있다. 경쟁사가 있는만큼 이사장에게는 영업력과 소통능력이 더 요구된다.

각 지역금고에는 실무책임자가 있다. 감사도 있다. 금고마다 자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학벌과 이력보다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제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사장 임기는 4년이다. 다음 선거까지 성적표 관리가 요구된다. 선거는 끝났지만, 금고 운영은 이제 막을 올렸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부실한 금고 운영이 지속되면 다음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초졸이든 석사든 박사든 중요하지 않다. 과정은 비판해도 조합원이 직접 뽑은 이사장에겐 응원을 보낼 때다. /kimsan119@



## 김상회의四季 인생삼락

공자는 논어에서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즉 인생삼락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오는 것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이다. 공자가 꼽은 인생삼락은 생활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것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의 인생삼락도 공자의 그것과 비슷한 명리 공부, 상담자와의 만남으로 보람이 있는 인생삼락이다. 필자는 평생을 배우고 익히며 더 넓고 더 깊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항상 애썼다. 연관된 인문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담자들이 필자를 찾아오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필자를 찾아온다는 건 인연이 그만큼 깊어진다는 의미다. 상담자들은 인생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한다. 좋은 해법을 얻어가는 상담자들은 다시 필자를 찾아오고 인연이 더 깊어진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명리 상담으로 힘겨운 지경을 벗어나 일이 풀리는 걸 보는 기쁨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다.

걱정에 가득 찼던 얼굴이 가벼워지고 웃음으로 가득 차는 걸 보면 필자도 따라서 기분이 좋아진다. 명리 상담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필자 혼자 느끼는 자긍심과 보람이 더 중요하다.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보람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인생삼락이라고 할 만한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즐거움의 방법과 형태가 다를 뿐 어렵지 않은 것들이다. 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형태의 인생삼락이다. 공자의 말처럼 즐거움은 저 멀리 있지 않다. 공자의 인생삼락을 거울삼아 나의 인생삼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마을금고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마을금고의 일과를 돕기 위해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4	6
			5		
	5		6	1	8
	8	5	2	4	
	6	3	7	9	
4		9	7	3	
		2			
3	2			7	5

			5	9	8
			2		3
5				1	9
3				1	8
		5		6	
1		3			2
7	6	2			4
	1			5	
		4	7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마을금고의 일과를 돕기 위해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2	9	1	2	8	8
4	1	8	6	9	2	2	6
9	2	8	2	6	1	9	4
2	8	6	2	1	8	4	9
1	2	9	4	8	9	6	2
8	4	9	2	6	9	8	1
8	8	2	1	9	2	9	6
2	6	1	9	8	4	9	8
9	9	4	6	2	8	8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마을금고의 일과를 돕기 위해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9	8	2	8	2	4	9	6
6	2	2	9	9	4	8	1	8
4	8	9	6	1	2	9	2	2
2	4	6	9	8	2	8	1	2
8	1	9	2	4	8	9	6	2
8	9	2	1	2	6	9	4	8
2	6	4	1	4	8	9	2	9
9	8	4	8	2	1	4	4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